

# 광장의 언어

## 지테(Sitte)의 시선에서 바라본 광장의 구조와 의미 이해하기

오장근\*

### 【 차례 】

- I. 들어가면서
- II. 광장을 바라보는 지테의 시각
- III. 텍스트로서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광장 특성
  - 1. 폼페이 광장의 특성. 히피스럴(hypaethral)의 성격
  - 2.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특성. 아트리움(Atrium)의 성격
- IV. 중세와 르네상스 광장
  - 1. 고대 광장의 흔적
  - 2. 플로렌스 시뇨리아 광장의 텍스트적 의미
  - 3. 광장과 모뉴먼트의 텍스트 관계
- V. 우리의 광장, 잃어버린 언어
- VI.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까밀로 지테(Camillo Sitte)의 관점에서 유럽 도시공간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광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장이 창출하는 의미상관관계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공간의 신화를 읽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테의 광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은 세 가지 원리이다. 첫째는, 광장은 불규칙적인 실체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건축물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때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광장의 단절된 구조를 유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끝으로 지테에게 있어서 광장은 도로를 위한 공간이 아닌 인간 중심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지테의 관점에서 볼 때, 광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별 건축물의 건축적

---

\* 목포대학교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광장의 내적 결속력에서 발생하는 창의적 가치(의미)이며, 개별 파트의 총합 이상의 전체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광장의 텍스트성으로 정의하고, 폼페이 포럼과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플로렌스 시뇨리아 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예를 통해 광장이 수용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읽어 보고자 하였다.

열쇠어 : 지테, 광장, 폼페이 포럼,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플로렌스 시뇨리아 광장

## I . 들어가면서

본 논문은 오스트리아의 건축가이자 화가이며 도시기획자이기도 한 까밀로 지테(Camillo Sitte)의 관점에서 유럽 도시공간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광장의 구조를 이해하고,<sup>1)</sup> 이를 기반으로 광장이 창출하는 의미상관관계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공간의 신화를 읽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본 논문이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론은 텍스트학으로, 이는 광장을 하나의 폐쇄적 의미형성체인 텍스트로 이해하여 광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텍스트구성소로 간주하고, 이의 통합을 통해 광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혀내는데 최적의 분석도구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무엇보다도 지테의 시선에 따라 광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테에게 있어서 광장은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한 물리적 요소들 중 하나로, 도시를 미적으로 구성하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따라 인식론의 관점에서 광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테가 광장을 폐쇄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건축과 외부공간, 그리고

---

1) 까밀로 지테(Camillo Sitte, 1843-1903)는 19세기 말엽 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도시해석을 수행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도시기획가이다. 도시에 대한 기하학적인 공간조성 원리에 대해 예술적 수준의 향상이라는 대응책을 제시한 최초의 도시설계 논의를 제시하였다. 지테의 유명한 저서 ‘예술적 원리에 따른 도시계획(Der Städtebau nach seinen künstlerischen Grundsätzen)’은 19세기 말에 휘말린 유럽의 근대적인 산업도시화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였으며, 후에 미국의 도시미화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모뉴먼트와의 텍스트적 결속 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광장의 언어를 중시하였다는 점은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테의 광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한 후에, 그의 시각에서 다시금 광장을 재구성하고 그 속에 내재된 광장의 언어를 읽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고대 로마의 폼페이 광장과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 그리고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시뇨리아 광장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이들 광장이 지테의 관점에서 볼 때, 폐쇄적 공간으로서 고유한 의미를 창출하는 텍스트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의 광화문 광장을 예로 하여 우리의 광장이 잃어버리고 있는 공간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 II. 광장을 바라보는 지테의 시각

“광장은 방과 같아야만 한다. 광장은 폐쇄적 공간을 형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테, 1889)

지테가 활동한 19세기 후반 유럽은 산업의 발달, 인구의 도시 집중,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대규모 도시의 확장이 일어나고, 파리의 오스만 계획이나 비인의 링 스트리트(도시순환도로) 건설 등과 같은 직선도로와 원형도로의 확장은 도시공간의 기능성이 강조된 비장소적 공간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광대하고 개방된 광장과 도시공간의 기하학적 배치는 현대적 공간 기획으로 촉망받으며 옛 도시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이러한 도시계획 또는 확장 계획은 한편, 정권과 도시의 힘을 상징하면서 실용성과 기능을 예술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1889년에 출판된 지테의 저서 ‘예술적 원리에 따른 도시계획(Der Städtebau nach seinen künstlerischen Grundsätzen)’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실용성과 예술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 도시미학적 시도였다. 이를 위해 지테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의 도시환경을 연구하고, 그 성격을 지켜보고, 각각의 유효성이나 효과를 분명히 하여, 마침내는 개개의 사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법칙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손세욱/구시온 2000, 8 참



〈그림 1〉 까밀로 지테

조). 그러기에 지테가 구상한 미학적 도시 계획은 고대와 중세의 도시공간에 대한 향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도로의 계획이나 기능의 배분이 아닌 장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지테는 도로위주의 도시 계획을 반대하고 광장위주의 도시 계획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지테의 탈근대적인 맥락주의적 도시구성 이론은 시각적 의외성, 공간구성의 불규칙성, 공간의 폐쇄성, 보행자 위주의 공간구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손세관 1995, 90). 이처럼 지테는 직교형 체계 또는 방사형 체계에서 나타나는 필지별 가구구성이 아닌 경험적 패턴과 연속성의 창출을 위한 공간의 조정배열이 곧 도시설계의 구성내용임을 밝히고, 광장이나 가로와 같은 공공 공간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표 1〉 까밀로 지테의 도시미학<sup>2)</sup>

구 분	내 용
예술적 원리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시각적이고 불규칙한 의외성이 반영
도 시	도시를 연속체로 생각하고, 건축물들이 상호 관련을 갖는 유기적 조직
적용 방법	공간구성의 불규칙성, 공간의 폐쇄성, 보행자 우선의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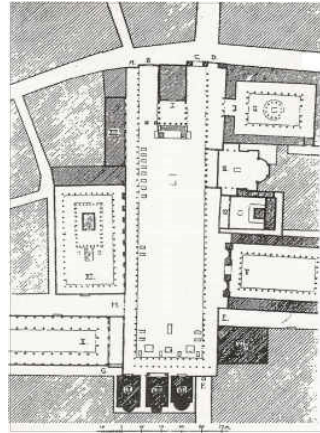
2) 본 도표는 홍선희/이재환(2001)의 발표문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구성요소	광 장	둘레를 건물로 밀폐시킨 개방의 공간 광장의 중앙은 비워둔다 건물 파사드의 높이에 비례하여 광장의 깊이를 정한다
	가 로	시각의 연속성, 불규칙한 형태, 픽처레스크한 느낌
	모뉴먼트	종교적, 기념비적 작품 예술작품
	도시블럭	완만한 곡선과 직선이 조합된 다각형
요소의 관계	건물은 광장을 에워싸고, 건물의 벽면은 모뉴먼트의 배경이 된다 광장은 쓰여지는 곳이다	

### Ⅲ. 텍스트로서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광장 특성

#### 1. 폼페이 광장의 특성. 히피스럴(hypaethral)의 성격

폼페이(Pompeii)는 고대 로마의 도시로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 나폴리 인근으로, 현재 행정 구역으로는 폼페이 코무네에 속한다. 기원후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산 분화로 인근의 헤르쿨라네움 등과 함께 화산재와 분석에 묻혀 파괴되었다가 1549년 수로공사중에 유적이 발견되면서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폼페이에서는 1748년 광장, 목욕탕, 원형극장, 약국 등 다양한 유적지가 발굴되었다. 이들 중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광장 원형을 보여주는 <그림 1>의 폼페이 포럼은 4면이 모두 공공건축물로 둘러싸인 폐쇄적 공간의 특성을 보여 준다.<sup>3)</sup> 포럼이 폐쇄적 성격을 띠었다는 것은 도시공간에서 포럼



〈그림 1〉 폼페이 포럼(Forum)

3) 포럼(Forum)은 고대 로마시대 도시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이탈리아어로 포로(foro)라고 하며,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이 독립적 단위로 형성되면서, 포럼 자체만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즉 하나의 텍스트로서 공간수용자에게 일정한 공간의 의미를 생성하는 장소적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간을 방문한 사람은 이 공간이 수용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구성이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특징이라 한다면,<sup>4)</sup> 폼페이 포럼은 폼페이라는 도시 공간이 형성될 때, 이 도시가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자 하였는지를 유추하는데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보면, <그림 1>의 폼페이 광장은 북쪽으로 베수비오 화산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주피터(제우스) 신전, 남쪽에는 재판과 상업의 집행 장소인 바실리카, 선거를 위한 코미튬(Comitium), 세 개의 시청 건물(공공건물)이 있다. 바실리카 옆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 아폴로 신전 옆에는 호레이(곡물창고) 또는 포럼 올리토리움이 있는데, 이 건물은 창고와 곡물시장을 두기 위한 곳이었다. 이밖에도 양모 시장인 에우마키아(Eumachia) 건물이 바실리카 맞은편에 있고, 광장의 서편에는 연설자의 연단이 미완성인 채로 있다. 주피터 신전 왼편에 폼페이 식품 시장인 마첼럼(Macellum)이 있고, 이 마첼럼 옆에는 라리의 신전이 있다. 그 옆에 베스파니아누스의 신전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폼페이 광장은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고 중앙 위쪽에 주피터 신전이 자리하고 있으며, 주위는 주랑으로 둘러싸인 구조를 보인다.



광장으로 통하는 길의 유입이 제한되어 있어 공간의 폐쇄성을 강조 <그림 2> 고대 로마시대 폼페이 가상도

4) 이탈리아가 포럼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중세 유럽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은 교회광장과 같은 종교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하였다.

하고 있는 폼페이 포럼은 하나의 텍스트로, 폼페이이라는 도시공간이 지나는 장소적 의미를 유추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되는 공간이 된다. 결국 폼페이 포럼은 주피터 신전, 아폴로 신전, 라리 신전, 그리고 베스파니아누스 신전으로 구성된 신의 공간(신전)과 바실리카, 코미툼, 시청, 호레아, 에우마키아, 그리고 마첼럼 등으로 구성된 인간의 공간(행정공간과 상업 공간)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는 공존적 공간으로 읽혀질 수 있는데, 이는 도시 공간 폼페이가 주피터 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들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의 생활공간임을 상징한다. 즉 폼페이 포럼은 다수의 신전이 있기는 하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종교광장이기 보다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루어지는 ‘집회광장 또는 시민광장’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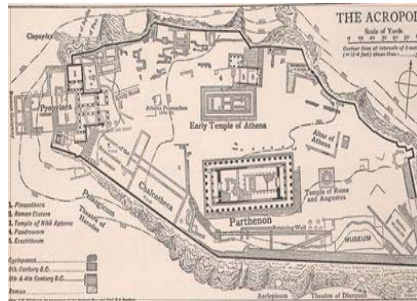
## 2.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특성. 아트리움(Atrium)의 성격

지테에 따르면, 고대 광장은 도시 전체에 있어서 개개의 가족에 대한 아트리움(atrium 안뜰)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손세욱/구시온 역 2000, 21 참조), 여기에는 다수의 모뉴먼트와 조각상 등 귀중한 미술품들이 수집되어 아트리움의 벽에 배치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인상을 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도시공간의 내적 결속력(Inherence)을 중요시한 지테의 고대 광장에 대한 향수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지테는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며, ‘거기에는 건축과 조각과 회화가 합체되어 심오한 비극이나 위대한 교향악처럼 숭고하고 화려한 조형미술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한다.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벽에 둘러싸여 비어있는 공간 속에 신전과 모뉴먼트를 채워 넣어 사상과 예술이 어우러진 그리스인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면서 기념비적인 풍경을 만들어

5) 브리테니커에 따르면, 광장은 기능적으로 시민이 모이는 집회 광장, 교회 앞의 종교 광장, 시장이 열리는 시장 광장, 오벨리스크나 조각이 세워진 기념 광장, 간단한 스포츠에 이용되는 운동 광장, 교차로나 역전 광장 등의 교통 광장, 밀집 주택 주변에 있는 생활 광장, 피난을 위한 피난 광장 등이 있다. 광장은 이밖에 전문화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용도의 공간이다. 인터넷 브리테커 설명 참조.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2g1383b>

내고 있다. 조각가 페이디아스(Pheidias)는 뛰어난 영감을 발휘하여 이곳의 바위 언덕을 사상과 예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기념물로 탈바꿈시켰는데, 이 시기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기념물로는 익티누스(Ictinus; Ikinos)가 세운 파르테논(Parthenon) 신전, 에레크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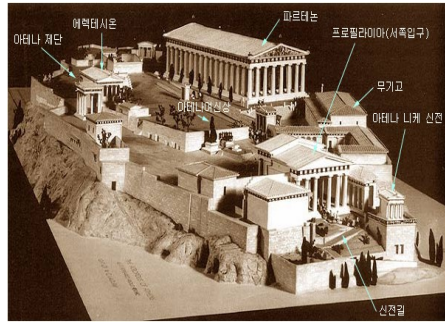
〈그림 3〉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도면

이온(Erechtheion) 신전, 므네시클레스(Mnesicles)가 설계한 기념 조각 형태의 아크로폴리스 신전 입구인 프로필라에아(Propylaea), 그리고 작은 규모의 아테나 니케(Athena Nike) 신전 등이 있다. 지테에게 있어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건축이 자연의 현장에 적응된 최상의 표현물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장엄한 구조물의 웅장한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테는 ‘위대한 민족이 가지는 세계 관조의 지각 표현’이라고 언급하며, ‘평범한 도시 건축군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몇 세기에 걸쳐 진행된 순수한 예술적 표현’이라고 경탄하기에 이른다.

지테의 미학적 인식을 다시금 텍스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는 동서 약 270m, 남북 약 150m로 서쪽의 올라가는 입구를 제외하고 다른 3방향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폼페이 포럼과 마찬가지로 폐쇄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역시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테의 의미에서 아트리움(저택의 안뜰)적 특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다양한 신전들과 아테나 여신상, 그리고 다수의 모뉴먼트들은 이곳을 마치 하나의 성스러운 곳으로 인식하게 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공간 아크로폴리스가 만들어내는 기능은 종교광장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성격이 강한 중세의 종교광장과는 다르게, 그리스 신화의 다양한 신들의 공간으로 채워진 아크로폴리스의 종교광장은 화려한 모뉴먼트들과 함께 도시의



풍요와 통치자의 권력이 내재되어 전달되는 시뇨리아 광장의 성격도 동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기능적으로 종교 광장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시뇨리아 광장의 성격을 띠는 혼종적 특성을 보이는 독특한 광장의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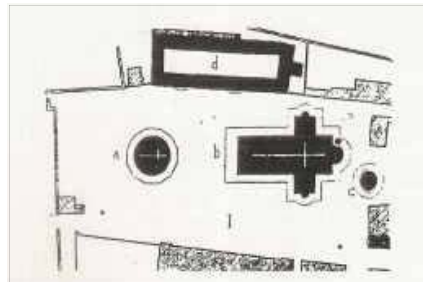
〈그림 4〉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상상도

## IV. 중세와 르네상스 광장

### 1. 고대 광장의 흔적

남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오늘날까지 옛 도시의 구조뿐만 아니라 공공 생활의 많은 습관이 보존되고 있으며, 도시의 주요한 광장들에서는 많은 측면에서 고대 광장의 형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광장의 다수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조성되었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교회 권력과 시민 권력의 분리가 진행되면서, 교회의 광장인 대성당 광장과 시민 광장인 시뇨리아 광장, 그리고 상업행위가 일어나는 시장 광장 등이 구분되고, 이에 따라 광장의 기능과 역할도 구별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상업의 발달은 사람의 왕래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도시의 발달로 연결되어 유럽의 광장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5〉 피사 대성당 광장

이제 광장에서는 공공의 축제가 행해지고, 연극이 상연되며, 공공의 의식이 개최되고 법률이 공포되었다. 대성당의 광장이 보통 세례당, 종탑, 사제관과 함께 고유한 종교적 의미를 생성하는 반면, 시뇨리아 광장은 궁전의 앞뜰과 같은 느낌이 들며, 그 지방 귀족 저택들로 둘러싸이고 역사적 모뉴먼트로 장식되면서 대성당 광장과는 차별화된 의미를 생산한다.

## 2. 플로렌스 시뇨리아 광장의 텍스트적 의미

이탈리아 광장 중 플로렌스의 시뇨리아 광장은 지테에게 있어서 특별하다. 지테가 굳이 플로렌스의 시뇨리아 광장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 광장으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위 건물과의 긴밀한 의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광장의 텍스트성 때문이다. 플로렌스의 시뇨리아 광장은 그 중앙에 메디치가의 통치자 중 하나인 코시모 1세의 청동 조각상을 중심으로 주변에 다양한 그리스·로마시대의 신화나 사건, 또는 성서의 이



〈그림 6〉 플로렌스 시뇨리아 광장

야기를 표현한 조각품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말을 타고 등장하는 코시모 1세의 청동조각상 좌측 모서리에 마차를 타고 등장하는 바다의 신 넵튠(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의 동상을 병렬함으로써 코시모 1세의 권위를 신화화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베키오 궁전 입구 양쪽에 위치한 미켈란젤로(Michelangelo)의 <다비드상>과 바르톨로메오(Bartolomeo)의 <헤라클레스와 카쿠스>는 독재권력을 이긴 시민 권력의 상징과 이들 시민들에 의해 추방되었다가 복귀한 메디치 가문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키오 궁전 앞에 있는 르네상스 조각가 도나텔로(Donatello)의 <홀리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 란치 회랑(Loggi dei Lanzi)에 전시된 <메두사의 머리를 벤 페르세우스>, <메디치가의 사자들>, <겁탈당하는 사빈느 여인> 등 다수의 공포스럽고 투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조각상들은 메디치 가문의 영화와 함께 시민들에 의해 추방된 적이 있는 메디치 가문의 권력에의 의지와 시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결국 플로렌스의 시뇨리아 광장은 중심에 위치한 코시모 1세의 동상과 주변 조각품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메디치 가문의 부와 절대적 통치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3. 광장과 모뉴먼트의 텍스트 관계

광장의 텍스트성은 광장이 지니고 있는 장소적 기능과 더불어 텍스트구성소인 광장과 모뉴먼트들 간의 상관관계, 즉 결속성에 의해 창출된다. 무엇보다도 모뉴먼트와 광장의 관계에 의해 창출되는 의미에 대해 지테 역시도 언급하고 있는데(손세욱/구시온 2000, 33 이하), 그는 베키오 궁전 정문 앞 좌측 벽면에 세워진 다비드 상의 예를 들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 위대한 조각상이 최초로 위치할 장소로 광장의 한쪽 모서리인 베키오 궁전 앞을 선택한다. 그는 왜 광장의 중앙이 아닌 모서리 벽면을 선택한 것일까? 물론 지금의 다비드상은 모조품이고, 원 조각상은 플로렌스 청사 내부로 옮겨져 유리 상자에 갇힌 <그림 7> 시뇨리아 다비드 상 인형이 되어 있지만, 이 작품은 1504년부터 1873년까지 여기에 있었다. 이는 베키오 궁전의 짙은 벽면이 다비드 상의 라인을 두드러지게 하고, 비교적 좁은 광장에서 다비드 상을 더욱 거대한 모뉴먼트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다비드 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시 거대 권력이던 독재자를 몰아내고 시민들이 공화국을 되찾은 기쁨을 상징하는 다비드상이 우측에 위치한 메디치 권력의 상징인 모뉴먼트 <헤라클레스와 카쿠스>와 대립되면서 메디치 권력이 시민 권력과 어떠한 긴장도에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추론하게도 한다. 광장의 텍스트성을 강조하는 그의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건은 미켈란젤로 광장에 다비드상의 모조품을 설치하기 위한 플로렌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확인된다. 지테는 플로렌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켈란젤로 광장에 위치하게 된 다비드 조각상이 전방에는 아름다운 조망을, 배후에는 카페를, 그리고 측면에는 주차장을 배치함으로써 주변의 환경과 동떨어진 고립적 요소가 되어 텍스트적 의미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itte 1909, 22 이하 참고). 관광객들은 이제 여행 안내책을 들고 이곳에 모여들지만, 이 조각상이 인간의 크기보다 그리 크지 않음에 위엄을 느끼지 못한 채 다비드상의 의미를 읽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도시계획가들은 광장의 중심이야말로 모뉴먼트를 배치하는 유일하게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때 광장은 아무리 커도 단지 하나의 모뉴먼트로 밖에 맞이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광장은 넓은 공터가 되지만 그곳이 전달해야 할 의미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게 된다. 이를 지테는 현대 광장의 가장 어리석음의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기능주의적 도시계획에서 광장의 텍스트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다.

## V. 우리의 광장, 잃어버린 언어

서구의 도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우리의 도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서구 도시문화는 ‘광장문화’라 할 만큼 광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구 문명의 원천인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와 고대 로마의 포럼(forum)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일상의 종합 활동을 담는 폐쇄적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광장은 서구의 도시문명, 민주주의, 공공성의 상징을 표상했다. 반면 서구의 광장과 비교되는 우리의 공간은 마당인데, 우리의 마당은 근본적으로 생산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공간이기에 일상성과 친밀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기에 서구 도시의 광장이 ‘공공의 공간’이라면, 한국의 마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친연적(親緣的) 공간’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도 근대화의 진행과 함께 도시가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도시공간을 질서있게 조성하기 위해 도로의 교차점에 광장을 배치하는 교통 중심의 광장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서울역 광장과 여의도 광장, 그리고 시청 앞 광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2장에서 언급한 바처럼, ‘도로위주의 광장’에 반대하는 지테의 시각에서 볼 때, 광장은 불규칙적 공간, 인간중심의 공간, 둘레의 건축물과 모뉴먼트들로 한계지어진 맥락중심의 폐쇄적 공간 등 3가지 특성을 가지며 이 점에서 빈터와는 구분된다. 다시 말해 교통중심의 서울역 광장이나 시청 앞 광장은 지테에게 있어서는 공간의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장소로서 빈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최근 조성된 광화문 광장은 그러나 이전의 광장과는 다르게 도시의 기억을 기반으로 한 인간중심의 광장을 지향하였다. 조선시대의 육조거리를 재현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문화광장으로서, 개별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역사성을 부활하고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의 대표적 상징공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9년 8월 서울시민에게 펼쳐진 광화문 광장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육조거리의 역사적 기억은 사라지고 거대한 중앙분리대 안에 두 개의 모뉴먼트를 배치함으로써 광장이 전달해야 할 언어를 상실하고 있었다. 지테의 관점에서 보면, 광화문 광장은 흡사 미켈란젤로 광장에서처럼 모뉴먼트와 광장이 상호작

용하지 못하면서 고유한 의미를 창출하지 못하고, 도로에 의해 4면이 둘러싸임으로써 공간이 단절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간이 지닌 고유한 기억(육조거리)을 재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광화문 광장은 지테에게 있어서는 광장이 지녀야 할 맥락성도 단절되고, 규칙적이며, 공간의 언어를 상실한 공터로서, 단지 두 개의 모뉴먼트만이 강조되고 기억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화문 광장이 공간 수용자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비록 단절되어 광장의 텍스트적 의미는 읽을 수 없다 손치더라도, 광화문 광장은 두 개의 모뉴먼트로 인해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며, 정치적 전시 공간의 상징적 의미는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 VI. 맺음말

지테의 이론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한계와 모순점이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도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지키고, 편안함을 주어야 하기에, 도시의 유기적 환경의 재생과 도시공간의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테의 노력은 충분히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지테의 광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은 세 가지 원리이다. 첫째는, 광장은 불규칙적인 실체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건축물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때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광장의 단절된 구조를 유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끝으로 지테에게 있어서 광장은 도로를 위한 공간이 아닌 인간 중심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지테의 관점에서 볼 때, 광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별 건축물의 건축적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광장의 내적 결속력에서 발생하는 창의적 가치(의미)이며, 개별 파트의 총합 이상의 전체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광장의 텍스트성으로 정의하고,

폼페이 포럼과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플로렌스 시뇨리아 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예를 통해 광장이 수용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읽어  
보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강내희, 『공간, 육체, 권력』, 문화과학사, 1995.
- 김성도, 『도시인간학』, 한국출판사, 2014.
- 김성도/박상우, 「서울의 공간적 의미 작용에 대한 기호학적 시론」, 『기호학연구』 19집, 한국기호학회, 2006, 41-70쪽.
-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 · 한국인의 심상 공간 상』, 논형출판사, 2005.
- 손세관, 「도시미학 이론의 주창자 까밀로 지테」, 『국토정보』 1995/12, 1995, 90-95쪽.
- 손세옥/구시은 역, 『도시, 건축, 미학』, 태림문화사, 2000.
- 오장근, 『텍스트와 문화콘텐츠』, 한국문화사, 2006, 1-261쪽.
- 오장근, 「도시공간 ‘청계천’의 서사성과 문화정체성: 도시공간 ‘서울’의 분석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 『기호학연구』 25집, 한국기호학회, 2009, 205-231쪽.
- 오장근, 「텍스트언어학 기반의 도시 이미지 분석 연구: 독일 베를린시의 홍보동영상 분석을 예로 하여」, 『텍스트언어학』 28집, 한국 텍스트 언어학회, 2010, 105-128쪽.
-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2005.
- 이상일, 「실재론의 지리학적 함의와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4집, 서울대학교, 1990, 1-24쪽.
- 홍선희, 이재환, 「현대도시건축의 맥락성(Contextuality)에 대한 연구: Camillo Sitte의 도시이론이 현대도시설계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2, 대한건축학회, 2001, 1-4쪽.
- M. Auge,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London, 1996. (독일어판 M. Bischoff, *Orte und Nicht-Orte, Vorüberlegungen zu einer Ethnologie der Einsamkeit*: Fischer, 1994).
- K. Brinker,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Berlin, 1983/1988.
- M and A. Gottdiener, Ph. Lagopoulos, *The City and The Sig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A.J. Greimas, 「의미에 관하여」(Du sens I),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원전은 1972/83년에 출판).
- K. Lynch,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1960.
- Ch. Norberg-Schulz,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Electa Rizzoli, New York, 1986.
- R. Oldenburg, *The Great Good Place*, New York, 1991.



- R. Scollon & S. Scollon, *Discourses in place*, Language in the material world. Routledge, 2003.
- C. Sitte, *Der Städtebau nach seinen künstlerischen Grundsätzen*, Paperback in German - Reprint der 4. Aufl., Birkhäuser, 1909.
- Y.-F. Tuan, "Language and the making of place: A narrative-descriptive approac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991, pp.684-696.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2g1383b> (2014.08.10.)
- [http://www.eberle.arch.ethz.ch/cms/uploads/files/pruefung/texte/Camillo\\_Sitte.pdf](http://www.eberle.arch.ethz.ch/cms/uploads/files/pruefung/texte/Camillo_Sitte.pdf) (2014.08.15.)

## Sprache der Plätze

Eine Untersuchung zum Platz, seinen Strukturen und Bedeutungen  
aus der Perspektive von C. Sitte

Oh, Jang-Geun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textwissenschaftlichen Untersuchungen zum Platz, seinen Strukturen und Bedeutungen aus der Perspektive von Camillo Sitte. Der Österreicher Camillo Sitte veröffentlichte 1889 seine Gedanken zum Städtebau. Vor allem die Spuren der aufkommenden Gründerzeit sind der Grund sich auf alte Stadtstrukturen zurück zu besinnen. Über lange Zeit gewachsene Stadtplätze werden einer Analyse unterzogen und mit Zeichnungen illustriert, die zum Weiterdenken anregen.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r geometrischen Grundrissform wird oft pragmatisch aus der Sicht des Benutzers geführt. Nicht nur aus heutiger Sicht typische Szenarien wie Blickachsen werden herangezogen, sondern auch die Bewegung und das Erfahren von gebauter Umgebung. Dabei finden Details Erwähnung, die auch heute mit wenig Einsatz noch viel bewirken können. Gewissermaßen wird die grundsätzliche Frage intoniert, auf welche Weise der städtischen Raum genutzt werden sollte und einen Umgang mit den technischen Errungenschaften und deren Nebenwirkungen zu finden.

Key Words : Camillo Sitte, Urban Square, Pompeii Forum, Acropolis of Athens,  
Piazza della Signoria of Florence

투고일 : 2014.08.10 / 심사일 : 2014.09.01 / 심사완료일 : 2014.09.12